

도덕적 위반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도덕 판단과 정서, 정서귀인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 희 선¹⁾

한국교육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외현화행동과 도덕 판단 및 정서 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서울소재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총 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덕적 위반상황에서 아동의 도덕적 추론, 결과에 대한 평가, 정서귀인과 외현화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라 도덕판단(잘못된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해주기 상황에서 흠치기 상황보다 도덕적 위반이 더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도덕 판단, 도덕 판단 귀인, 정서, 정서귀인은 모두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덕 판단과 정서, 정서귀인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위반행동을 타인이 아닌 자기가 했다고 가정할 때, 도덕적인 이유로 귀인하며,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쾌락으로 귀인하는 경우 외현화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의 통합적 관점에서 반사회적/친사회적 상황과 타인/자신의 관점차이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덧붙여 초등학교 아동의 도덕 판단과 정서귀인방식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요어 : 외현화 행동, 도덕추론, 정서(자기-타인), 정서귀인, 도덕적 위반 상황, 아동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한 것임.

1) 교신저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E-mail: heesun@kedi.re.kr)

I. 서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결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16.6%로 나타났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3.2.8), 자살,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장애, 섭식장애 등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아동의 내면적 문제행동보다는 외현적 문제행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iljequist & Renk, 2007). 대체로 아동기의 외현적 문제행동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또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적절히 개입하지 않는 동안 다른 문제 행동이 가중되는 동시에 발병률의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찬경, 강지현, 2013 재인용; Hamberg, 1992). 또한 아동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청소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Egeland, Yates, Appleyard, & van Dulmen, 2002)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비행행동, 공격행동, 파괴적 행동, 통제 결여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이 겹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강지현, 오경자, 2011; Hinshaw, 2002). 개정된 한국판 아동행동체크리스트에서는 외현화 문제 행동에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개인의 내적 문제와 환경적 요인

으로 구분하여 설명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강지현, 오경자, 2011; Cowen, Work, & Wyman, 1997; Luchar, 1991; Williams, Anderson, McGee, & Silva, 1990).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로 자아탄력성의 관련성 연구(김보라, 김규민, 2010; 최지영, 박경, 2007;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White et al., 1994),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상관관계 연구(김계원, 2012), 스트레스와 부모양육과의 초등학생의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정연옥, 2010) 등이 있다. 환경적 변인으로서는 부정적 생활사건(김보라, 김규민, 2010)이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권재기, 2011), 양육환경(정은희, 김혜미, 2013), 부모요인(이은주, 2010, 2011; 조미정, 김민주, 2013)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아동의 행동조절과 외현화에 관련된 문제 행동에서 도덕판단, 도덕정서, 정서귀인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0; Malti, Gasser, & Gutzwiller-Helfenfinger, 2010; Malti & Kellar, 2009). 특히, 사회정보처리모델(Crick & Dodge, 1994)에서는 공격적 행동과 외현화 행동이 가해자 행동의 의도에 대한 사회-인지 왜곡과(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 Booth-LaForce, 2006; Orobio de Castro, Veerman, Koops, Bosch, & Monshouwer, 2002) 부분적 정서 정보처리의 왜곡 때문에 유발된다(Arsenio & Lemerise, 2001; Lemerise & Arsenio, 2000; Orobio de Castro, Merk, Koops, Veerman, & Bosch, 2005)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의 관련성 연구(한세영, 2007), 도덕적 이탈과 도덕

적 정서가 또래 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서미정, 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사회인지와 정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 판단과 도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외현화 행동과 도덕적 위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지발달론에서는 도덕적 행동선택, 정서귀인 그리고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편파적 도덕추론인 쾌락주의적 정당화(hedonistic justifications) 경향을 보인다고 보았다(Gibbs, 2003; Kohlberg, 1976; Piaget, 1965; 청소년 비행의 도덕 판단에 대한 메타분석 Stams et al., 2006 참조). 또한, 도덕 판단은 쾌락적 추론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일반화된 원칙에 기초한 추론이 증가하는 쪽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으며(Eisenberg, Boehnke, Silbereisen, & Schuler, 1985; Keller, Edelstein, Schmid, Fang, & Fang, 1998), 이후 연구에서도 외현화 문제 행동은 도덕규범 위반에서 쾌락주의적 추론과 관련된 경향을 보인다(Arsenio & Fleiss, 1996; Bear & Rys, 1994; Manning & Bear, 2002; Menesini et al., 2003).

최근 도덕심리학계에서는 의식적 추론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직관이 도덕 판단과 정당화에 역할을 한다는 통합적인 관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이수남, 신현정, 김비아, 2014; Greene et al., 2004; Pizarro & Bloom, 2003; Pizarro, Uhlmann, & Bloom, 2003). 즉, 개인 간 행동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

겨지지 않았던 정서귀인과 도덕적 정서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Arsenio, Gold, & Adams, 2006; Arsenio & Lemerise, 2004; Hoffman, 2000; Krettenauer, Malti, & Sokol, 2008).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아동의 도덕적/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덕적 정서와 인지의 관련성만 논의할 뿐(Nussbaum, 2001), 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설명하는 도덕적 인지와 정서의 귀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인지가 초등학교 아동의 외현화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아동의 개인 내적 보호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기도 하다(Hastings, Zahn-Waxler, Robinson, Usher, & Bridges, 2000).

한편,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 정서적 귀인은 사회 도덕적 상황이 반사회적이나 친사회적이냐 하는 행위자의 의도와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Malti & Keller, 2009; Malti, et al., 2010). 아동의 도덕/비도덕적 행동은 상황과 가해/피해자에 대한 도덕 판단 뿐 아니라, 도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Hoffman, 2000; Keller & Edelstein, 1993). 즉, 아이들의 규칙위반에서 도덕적 정서가 아동의 행동을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사회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을 구분하는 것을 돕는다고 보았다(Arsenio et al., 2006). 이것은 도덕적 규칙 위반 상황에서 아동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귀인하는가 하는 도덕적 정서 귀인들은 주인공의 상황, 행

동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관련된 결과들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Harris, 2006).

정서귀인은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Harris, 1989). 지금까지 아동의 도덕적 정서를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특정 연령의 아동들이 도덕적 정서와 그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비도덕적 행위들에 대해 어떤 판단과 정서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로 다루어 왔다. 도덕적 규칙 위반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아이들이 도덕 규칙의 유효성을 이해하고 규칙위반을 처벌과 상관없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Turiel, 1983), 여전히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준다고 설명한 것이 행복한 가해자 현상(happy victimizer phenomenon)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정서 귀인에서 부정적 귀인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Arsenio & Kramer, 1992; Nunner-Winkler & Sodian, 1988).

또한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도덕적 정서가 달라진다는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은 도덕적 정서가 더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가해 상황에서는 죄책감을, 실수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Menesini & Camodeca, 2008). 도덕적 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귀인은 도덕적 정서라고 간주되며, 연구자들은 도덕 정서의 귀인과 감정이입 추론이 도덕규범의 내재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Montada, 1993; Nunner-Winkler, 1999). 이렇게 행복한 가해자(happy-victimizer) 패러다임에서 위반자에 대한 정서귀

인은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도덕적/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부여요소가 될 수 있다(Krettenauer et al., 2008; Malti, 2007). 아동이 도덕규칙의 유효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덕적 동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Keller, 1996; Montada, 1993; Nunner-Winkler, 1999; Nunner-Winkler, Meyer-Nikele, & Wohlrab, 2007).

특히, 아동은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행동을 자신의 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죄책감, 미안함 등의 도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과 타인 간에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Keller, Lourenço, Malti, & Saalbach, 2003). 자기 귀인된 도덕정서가 유아와 아동의 공격성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이 되는(Malti, 2010) 등 내면화된 도덕적 동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Keller et al., 2003). 따라서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도덕 판단과 더불어 정서와 정서귀인 중 타인정서와 자기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한편, 도덕발달에 있어서 성차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Waker, 2006). 대체로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Moffitt, Caspi, Rutter, & Silva, 2001), 국내에서도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현, 박경자, 2006; 최인숙, 2009; 박수정, 2011). 반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이 남아보다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밝히는(신유림, 2008; Crick & Grotpeter, 1995)

등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덕규칙위반이후에 자기 귀인화된 도덕적 정서와 관계에서 여아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반응하는 결과를 나타냈다(Malti & Keller, 2009; Zahn-Waxler, 2000). 그런데 유의한 성차가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면 공격성을 평정한 관찰자에 의해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최인숙, 2009)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 정서, 외현화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도덕적 판단, 판단 귀인 및 정서, 정서귀인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 판단과 판단귀인 및 정서와 정서귀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외현화 행동과의 영향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도덕판단, 판단귀인, 도덕정서, 정서귀인은 도덕 규칙 위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덕판단, 판단귀인, 도덕정서, 정서귀인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덕판단, 판단귀인, 도덕정서, 정서귀인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예비검사의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K 초등학교 2학년 27명으로 남학생 13명, 여학생 14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K초등학교 2학년 학생 160명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였다. 자료 수집결과, 분석이 어려운 초등학교 16명을 제외하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외현화행동설문지가 전체 중 57%가 수집되어 총 91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으로 7-8세로 남학생 44명(48.35%)과 여학생 47명(51.65%)이었다.

2. 연구절차

먼저, 아동의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의 도덕성을 묻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를 위해 서울 소재 K초등학교 2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피해주기와 훔치기의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에 주인공의 도덕규범 위반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야기 주인공이 어떤 느낌일지 정서와 그렇게 느낀 정서귀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면담과정은 이야기를 들려준 후, 연구자의 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고, 면담에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면담결과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들(Malti, Gasser, & Buchmann, 2009)을 참고하여 코딩항목을 구성하였다. 예비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에 따른 도덕판단과 판단귀인의 정당화 방식의 1) 쾌락적 이유, 2) 권위/제

재적인 이유, 3) 공감적 고려/대인간 결과 고려, 4) 도덕적 추론의 4개의 카테고리를 구성하였다. 도덕적 정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해자 입장과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느낌 일지에 대해 묻는 자기정서 항목을 추가하여 타인정서와 자기정서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정서귀인도 4가지 도덕 판단귀인의 정당화 방식과 마찬가지로 4개의 카테고리를 구성하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도덕판단, 도덕귀인 및 정서, 정서귀인 검사 도구는 교육학 전공 박사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평정자가 전체 질문지 자료를 대상으로 코딩 체계를 활용하여 상호 평정한 후, 상호 일치도를 비교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도덕판단 정당화 방식과 정서귀인 방식에 대해 Cohen의 카파점수(k)로 계산한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82였다.

본 검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통해 구성된 도덕판단과 정서를 묻는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서울시내 K초등학교 2학년 학생 160명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학부모님들에게 외현화행동검사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고, 학생들은 자기보고식 도덕판단, 도덕귀인 및 정서, 정서귀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배포된 160부의 학부모님에게 배부한 학생 외현화 행동검사지가 총 91부가 수집되어 학생 도덕 판단, 정서귀인 검사지와 함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외현화 행동측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인 CBCL을 오경자, 김영아(2010)가 번안한 부모용 K-CBCL(Korean Children Behavior Check list)척도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측정된 변수는 주의집중력(예, 나는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공격성(예,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비행(예, 집 안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다.)으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외현화 행동 중 주의집중 항목은 총 11개 문항으로 0-2(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가끔 그렇다. 2 = 자주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이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 수준이 낮다고 본다. 비행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은 총 19문항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s)을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반영하는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비행, 공격성) 소척도의 합으로 평가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이형민,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주의집중, 비행과 공격성 항목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주의집중력, 공격성, 비행에 대해 Cronbach alpha 값이 각각 .84, .76,

.65으로 나타났다.

도덕판단, 도덕귀인 및 정서, 정서귀인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Malti 등(2009)에서 사용한 4가지 갈등 상황이야기 중 2가지 상황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피해주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를 일부러 밀어서 친구에게 피해주기 상황과 두 번째 이야기(흠치기)에서 배

고픈 아픈 동생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빵을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다. 각 상황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표 1과 같은 질문을 한 후 그 응답을 코딩하였다.

도덕판단, 도덕판단 귀인과 도덕정서 및 정서귀인 코딩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판단은 옳다(0), 옳지 않다(1)로 더미 코딩하였다. 잘못된 정도에 대해서는 3점 리커르트 측정(1=나쁘지 않다. 2= 나쁘다. 3= 매우 나쁘다.

표 1. 도덕판단, 도덕판단 귀인과 도덕정서 및 정서귀인 코딩체계

영역	문항	질문	코딩
도 덕 판 단	이 행동이		
	문항 1. 도덕판단	한 사람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다.(0), 옳지 않다.(1),
	문항 2. 잘못된 정도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요?	3점 리커르트 척도 (1=나쁘지 않다. 2= 나쁘다. 3=매우 나쁘다)
	문항 3. 판단귀인 유형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1. 쾌락적 이유: 개인의 이익 2. 권위/제재적인 이유: 권위나 제재를 고려한 이유 3. 공감적 고려/대인간 결과 고려: 관계, 이타심/공감, 대인간 부정적 결 4. 도덕적 추론: 도덕규범, 규칙, 의무를 고려한 대답
도 덕 정 서	문항 4. 정서 (타인)	그림 속의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긍정적이다.(0), 부정적이다.(1)
	문항 5. 정서귀인 유형 (타인)	주인공은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1. 쾌락적 이유: 개인의 이익 2. 권위/제재적인 이유: 권위나 제재를 고려한 이유 3. 공감적 고려/대인간 결과 고려: 관계, 이타심/공감, 대인간 부정적 결과 4. 도덕적 추론: 도덕규범, 규칙, 의무를 고려한 대답
	문항 6. 정서 (자신)	그림 속의 사람이 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긍정적이다.(0), 부정적이다.(1)
	문항 7. 정서귀인 유형(자신)	당신은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문항5의 코딩과 상동

3=매우 나쁘다)하였다. 도덕판단 귀인 유형은 만 6~10세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체계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도록 하였다(Keller et al, 2003; Lourenc, 1997; Malti & Keller, 2009). 도덕 판단 귀인 유형에서 1은 쾌락적 이유 :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유, 2는 권위/제재적인 이유 : 권위나 제재를 고려한 이유, 3은 공감적 고려/대인간 결과 고려 : 관계, 이타심/공감, 대인간 부정적 결과와 같은 이유, 4는 도덕적 추론 : 도덕규범, 규칙, 의무를 고려한 이유로 답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타인(이야기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정서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0으로 코딩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은 1로 코딩하였다. 정서귀인 유형도 도덕판단 귀인 유형과 마찬가지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도덕 판단귀인과, 정서귀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카테고리 별로 코드화되었다(해당 카테고리가 사용되었으면=1, 사용되지 않았으면=0). 또한, 상관분석을 위해서 도덕 판단 귀인유형과 정서귀인 유형별로 카테고리 별 코드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1) 개인의 이익과 가깝고, 점수가 높을수록(4) 도덕적인 추론에 근거한 응답이었다.

3. 자료분석

먼저, 이야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변인들 상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른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도덕정서, 정서귀인의 차이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른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도덕정서, 정서귀인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대응표본 t -검증결과,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라서 도덕평가와 도덕정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피해주기와 흠치기의 상황에 따라 도덕판단(잘못된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90, p <$

표 2.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의 차이

		피해주기	흠치기	t
		$M(SD)$	$M(SD)$	
도덕판단	도덕 평가	.78(.29)	.87(.15)	1.15
	잘못된 정도	2.67(.65)	1.54(.51)	3.90*
도덕정서(타인)		.85(.23)	.77(.19)	1.09
도덕정서(자기)		.86(.18)	.89(.22)	.976

* $p < .05$.

.05). 즉, 피해주기 상황($M = 2.67$)에서는 흠치기 상황($M = 1.54$)에서 보다 더 도덕적 위반이 더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른 아동의 도덕 판단 귀인과 정서귀인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χ^2)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도덕판단 귀인에서 상황에 따른 판단귀인이 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_{(3)} = 53.55^{***}$, $p < .001$). 또한 정서귀인에서도 상황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_{(3)} = 42.12^{***}$, $p < .001$).

먼저, 도덕판단 귀인을 살펴보면, 피해주기와 흠치기에서 모두 도덕적 귀인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도덕 판단귀인으로 피해주기상황에서는 제재(벌)귀인이 11명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생을 위해 빵을 흠치기 상황에서는 공감귀인이 26명으로 높게 나타나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정서귀인을 살펴보

면, 피해주기 상황에서는 자기정서일 때 도덕적 귀인(47명)을 많이 하였으며, 타인정서일 때 쾌락 귀인(32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흠치기 상황에서는 타인정서일 때 도덕귀인을 많이 하였고(38명), 자기정서일 때 공감귀인을 많이 하는 것(49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2. 도덕판단, 정서, 도덕판단귀인, 정서귀인, 외현화 행동의 상관관계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과 외현화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도덕 판단, 도덕 판단 귀인, 정서, 정서귀인은 모두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위반상황에서 도덕 판단을 나쁘다고 판단할수록,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도덕적 귀인을 할

표 3.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귀인과 정서 귀인의 빈도분포(명/%)

	도덕 판단 귀인		정서귀인			
	피해주기	흠치기	피해주기		흠치기	
			타인정서	자기정서	타인정서	자기정서
도덕	71(78%)	57(62.6%)	26(28.6%)	47(51.7%)	38(41.2%)	23(25.3%)
공감	4(4.4%)	26(28.6%)	24(26.4%)	23(25.6%)	37(40.7%)	49(53.8%)
쾌락 (자기이익)	5(5.5%)	3(3.3%)	32(35.2%)	11(12.1%)	14(15.4%)	10(11%)
제재(벌)	11(12.1%)	6(6.6%)	9(9.9%)	10(10.1%)	3(3.3%)	9(.9%)
전체	91(100%)	91(100%)	91(100%)	91(100%)	90(98.9%)	91(100%)
χ^2	$\chi^2(3)=53.55^{***}$		$\chi^2(3)= 42.12^{***}$			

*** $p < .001$.

표 4.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과 외현화 행동의 관계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	외현화 행동
도덕판단	1	.57	.37**	.13**	-.21**
도덕판단귀인		1	.45***	.23**	-.12*
정서			1	.27**	-.47**
정서귀인				1	-.25**
외현화행동					1

* $p < .05$. ** $p < .01$. *** $p < .001$.

수록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정서를 느끼고, 도덕적인 정서 귀인을 할수록 외현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도덕 판단은 정서와 정적인 상관($r = .37, p < .01$)을 보였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하면 할수록 정서적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은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서귀인도 도덕 판단 귀인과 정적인 상관($r = .23, p < .01$)을 보임으로써 도덕 판단에서 도덕적으로 귀인을 할수록 정서적 귀인도 도덕적 정서귀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아동의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도덕정

서, 정서귀인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도덕판단, 도덕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 유형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해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모형은 23.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각 변인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을 정리하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는 초등학생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도덕판단, 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타인, 자기)의 독립변인 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

표 5. 도덕판단, 정서, 도덕규범위반유형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현화 행동		
	B(SE)	β	t
도덕판단	-.23(.58)	-.20	-2.42*
정서(자기)	-.20(.24)	-.13	-1.98*
정서귀인-쾌락(자기)	.35(.06)	.23	2.56*
정서귀인-도덕(자기)	-.37(.43)	-.33	-2.90*

$F = 3.76, R^2 = .24$ Adjusted $R^2 = .22$

* $p < .05$.

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정리한 것이다. 도덕 판단($\beta = -.20, p < .05$), 정서(자기정서)($\beta = -.13, p < .05$), 정서귀인-도덕(자기정서)($\beta = -.33, p < .05$)은 초등학생의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귀인-쾌락(자기정서)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3, p < .05$).

따라서 초등학생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 판단 점수가 높을수록, 주인공이 자신정서가 기분이 좋지 않을수록, 자기정서귀인을 도덕적인 귀인을 할수록 초등학생은 외현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자기정서귀인을 쾌락으로 귀인할 경우 외현화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즉, 도덕적 위반 행동에서 자기정서귀인을 그 행동을 한 후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동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칙위반 상황에 따라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 판단과 판단귀인 및 정서와 정서귀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 각 변인과의 관계를 점검한 후, 외현화 행동과의 영향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라서 도덕 판단(평가)과 도덕정서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도덕판단(잘못된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해주기 상황에서 흠치기 상

황보다 도덕적 위반이 더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덕 판단, 도덕 판단 귀인, 정서, 정서귀인은 모두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판단과 정서, 정서귀인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덕 판단, 정서(자기정서), 정서귀인-도덕(자기정서)가 초등학생의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귀인-쾌락(자기정서)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덕적 위반 상황에 따라서 피해주기 상황에서 흠치기 상황보다 도덕적 위반이 더 나쁘다고 평가한 결과로부터 아동의 도덕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본인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반사회적 규칙위반이 아픈 동생에게 먹줄을 가져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흠치게 된 친사회적 이유에 의한 규칙위반 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영역에 따라 도덕적 위반 상황을 도덕, 개인, 인습 영역 중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도덕적 원칙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결과와 유사하다(Perkins & Turiel, 2007). 또한, 반-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따라 도덕 판단과 정당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장희선, 2015).

둘째, 도덕 판단, 도덕 판단 귀인, 정서, 정서귀인은 모두 외현화 행동에 부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판단과 정서, 정서귀인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금까지 도덕 행동에 대한 연구가 도덕 판단과 추론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에서 벗어나 도덕정서도 함께 점검해야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덕 판단 역시 도덕적 정서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두 변인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도덕 심리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의식적 추론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직관이 도덕 판단과 정당화에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다(이수남 등, 2014; Greene et al., 2004; Pizarro & Bloom, 2003; Pizarro, Uhlmann, & Bloom, 2003). 즉, 도덕 판단과 더불어 개인 간 행동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정서귀인과 도덕적 정서의 역할(Arsenio et al., 2006; Arsenio & Lemerise, 2004; Hoffman, 2000; Krettenauer et al., 2008)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서가 외현화 행동과의 부적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공격이나 외현화 행동을 할 때 느끼는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서미정, 2013; Gini, Albiero, Benelli, & Altoe, 2007; Maeda, 2003)나 공격성 및 규칙 위반 행동과 같은 일탈행동과 부적 관련성(한세영, 2007)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도덕 판단, 정서(자기정서), 정서귀인-도덕(자기정서)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귀인-쾌락(자기정서)은 정적인 영향을 보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자기 귀인된 도덕적 정서의 강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부적인 관련이 있음과 맥을 같이한다(Krettenauer & Eichler, 2006; Malti et al., 2009).

아동은 도덕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자신의 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죄책감, 미안함 등의 도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과 타인 간에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Keller et al., 2003). 특히 자기 귀인된 도덕정서가 유아와 아동의 공격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이 되는(Malti, 2010) 등 내면화된 도덕적 동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결과(Keller et al., 2003)를 뒷받침한다.

덧붙여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가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며(Tangney, 1995), 공격적이며 부정적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Quiless & Bybee, 1997). 또한 도덕적 정서 중 죄책감보다 공감의 영향력이 가해동조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들(서미정, 2013; 송경희, 2010; Tangney & Dearing, 2002; Tangney & Fischer, 1995)의 결과를 부연 설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공감은 공감의 대상과 관찰자 간의 공유된 감정(Freshbach, 1975)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적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의 정서 상태를 자신이라고 가정했을 때, 또 도덕적 정서 귀인을 할수록 외현화 행동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들에 경험적 지지를 더해준 것이다.

덧붙여, 도덕적 규칙위반 행동에 대해 자기 정서귀인을 쾌락으로 할 경우 외현화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

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가치 있는 목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고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결과(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와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도덕적 규칙위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쾌락으로 귀인하는 상태인 행복한 가해자(happy-victimizer) 현상이 아동의 도덕적/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부여요소가 되고 있음(Krettenauer et al., 2008; Malti, 2007)을 재확인한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의 통합적 관점에서 반사회적/친사회적 상황과 타인/자신의 관점차이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아동의 외현화 행동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 내적요인과 환경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개인내적 요인으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요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한 실증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도덕 판단, 판단귀인, 도덕정서, 정서귀인 모두 부적인 영향을 보인 결과와 특히 도덕 판단도 도덕적 정서의 정적인 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덕적 위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과 도덕교육에서 가치명료화 교육, 인지발달론을 바탕으로 한 토론 수업 등의 교육에서 도덕 판단과 정서를 분별하여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도덕적 판단과 정서가 통합된 교육내용과 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자기 귀인된 도덕 정서와 정서귀인의 영향력이 외현화 행동에 타인 귀인 보다 크게 영향을 준 연구결과로부터 도덕적인 상황에서 아동은 위반 행동을 자신의 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도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과 타인 간에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을 확인한 결과이다(Keller et al., 2003). 이렇게 자기 내면화된 도덕적 동기가 도덕적 행동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공격적 행동과 규범위반 행동을 줄이기 위한 인성교육 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도덕과 인성교육에서 이야기나 사례를 제시하여 교육할 때, 이야기와 사례의 주인공에 대해 아동이 자기 내면화된 사고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 사례와 교사의 질문 등으로 교재와 수업방식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본 연구의 주제를 발전시키고 연구방법을 개선시킬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규칙위반 상황에서 도덕판단과 판단귀인 및 정서, 정서귀인에 대해 질문과 응답은 예비검사를 통한 심층면담과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한 질적 및 양적 연구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도

덕적 규칙위반 상황에 대한 도덕 판단과 정서의 자기보고식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규칙 위반에 대한 실제 그들의 행동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면담에 의한 자기보고식 도덕 판단에 의한 분석으로 실제 도덕 행동 간의 괴리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도덕 판단 귀인과 정서귀인의 범주 구성에 있어 선행연구(Malti et al., 2009)를 토대로 예비연구의 참여자의 응답을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문화 특수적인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아동의 내부적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더욱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도덕 판단 귀인과 정서귀인의 범주의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덕판단과 도덕정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도덕적 정서의 하위 범주들을 묶어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도덕적 정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심, 죄책감, 공감 등 구체화되어 연구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 유형들을 정서판단을 내리고 난 후, 정서 귀인의 범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빈도만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범주화한 정서귀인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된 도덕, 공감, 쾌락, 벌 등의 요인들과 이외 다른 정서귀인들의 항목별로 아동의 외현화행동과의 직,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도덕적 규범위반 행동은 개인내적인 도덕적 판단과 도덕 정서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처해진 상황에 속해있는 환경, 대상, 조직과 같은 총체적인 구조 속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그 연구 대상이 속한 실생활 속에서 도덕적 규범 위반 상황에 따른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영향, 및 학급, 학교, 공동체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 영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연구를 통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개인 내·외적인 맥락 요인들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동의 외현화 행동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판단, 판단귀인, 정서, 정서귀인의 연구결과들은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도 덧붙여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교육과학기술부 (2013.2.8.). 보도자료: '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서울: 교육부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 한국아동복지학, 34, 96-125.
- 김계원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상관관계 및 그에 대한 고찰. 서울: 법무부.
- 김보라, 김규민 (2010).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8(3), 1-24.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4.
- 박수정 (2011). 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령후기 아동의 성차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경, 강지현 (2013).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간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교육종합연구, 11(4), 1-22.
- 서미정 (2013).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23-138.
- 송경희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림 (2008). 또래 거부에 대한 친구의 사회적 행동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적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9), 61-69.
- 오경자, 김영아 (2010). CBCL 아동 청소년 6-18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중앙적성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수남, 신현정, 김비아 (2014). 청년기와 중년기 성인의 도덕 판단: 인지적 추론과 정서적 직관. 사회과학연구, 38(2), 63-92.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 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은주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의 검증. 인간발달연구, 18(2), 21-41.
- 이형민 (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6(2), 119-136.
- 장희선 (2015). 반사회-친사회적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 청소년의 행동선택과 정당화 방식 대응분석 연구. 교육심리연구, 29(3), 481-504.
- 정연옥 (2010). 초등학교의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 부모양육 행동과 부적응도식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315-333.
- 정은희, 김혜미 (2013). 학대경험이 초등학교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의 매개효과와 성차검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47-69.
- 조미정, 김민주 (2013).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 애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 최인숙 (2009).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영, 박 경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 *심리치료*, 9(2), 127-144.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rsenio, W., & Fleiss, K. (1996). Typical and behaviorally disruptiv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4, 173-186.
- Arsenio, W., Gold, J., & Adams, E. (2006). Children's conceptions and displays of moral emotions. In M. Killen & J.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581-6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rsenio, W., & Kramer R. (1992). Victimizers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4), 915-927.
- Arsenio, W., & Lemerise, E. A. (2001). Varieties of childhood bullying: Values, emotion processes, and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59-73.
- Arsenio, W., & Lemerise E. A. (2004). Aggression and moral development: Integrating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oral domain models. *Child Development*, 75, 987-1002.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ear, G. G., & Rys, G. S. (1994). Moral reasoning, classroom behaviour,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33-638.
- Burgess, K. B., Wojslawowicz,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 (200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ping strategies of shy/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Does friendship matter? *Child Development*, 77(2), 371-383.
- Cowen, E. L., Work, W. C., & Wyman, P. A. (1997). In S. S. Luc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pp. 527-547). New York: Cambridge.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Egeland, B., Yates, T., Appleyard, K., & van Dulmen, M. (2002).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in the early

- years: A developmental pathway model to antisocial behavior.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and Practice*, 5(4), 249-260
- Eisenberg, N., Boehnke, K., Silbereisen, R. K., & Schuler, P. (1985).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69-82.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Losoya, S., Murphy, B. C., & Reiser, M. (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5), 1367-1382.
- Feshbach, N. D. (1975).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J. C. (2003).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Beyond the theories of Kohlberg and Hoffma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e,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3(5), 467-476.
- Greene, J. D., Nystrom, L. E., Engell, A. D., Darley J. M., & Cohen, J. D. (2004). The neural bases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trol in moral judgment, *Neuron*, 44, 389-400.
- Hamberg, D. A. (1992).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development in middle school childhood. In D. A. Hamberg (Ed.), *Today's children: Creating a future for a generation in crisis*. (pp. 171-180), Random House.
-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Oxford: Blackwell.
- Harris, P. L. (2006). *Social cognition*. In D. Kuhn & R.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A John Wiley & Sons Ltd. Publication.
- Hastings, P. D., Zahn-Waxler, C., Robinson, J., Usher, B., & Bridges, D. (2000). The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in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Psychology*, 36, 531-546.
- Hinshaw, S. P. (2002). Process, mechanism, and explanation related to externalizing behavior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431-446.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r, M. (1996). *Moralische sensibilität: Entwicklung in freundschaft und familie*. Weinheim: Psychologie Verlags Union.
- Keller, M., & Edelstein, W. (1993). Die entwicklung eines moralischen selbst von der kindheit zur adoleszenz. In W. Edelstein, G. Nunner-Winkler, & G. G. Noam (Eds.), *Moral und person* (pp. 307-334). Frankfurt am Main: Suhrkamp.
- Keller, M., Edelstein, W., Schmid, C., Fang, F. X., & Fang, G. (1998). Reasoning abou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close relationships: A comparison across two cultures. *Development Psychology*, 34, 731-41.

- Keller, M., Lourenço, O., Malti, T., & Saalbach, H. (2003). The multifaceted phenomenon of 'happy victimizer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oral emo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8.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pp. 31-43).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rettenauer, T., & Eichler, D. (2006). Adolescents' self-attributed moral emotions following a moral transgression: Relations with delinquency, confidence in moral judgment, and ag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89-506.
- Krettenauer, T., Malti, T., & Sokol, B. (2008).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 expectancies and the happy victimizer phenomenon: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ap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 221-235.
- Lemerise, E. A., & Arsenio, W.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 107-118.
- Liljequist, L., & Renk, K.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perceptions of students,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ratings of stud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Educational Psychology, 27*, 557-571.
- Lourenc, O. (1997). Children's attributions of moral emotions to victimizers: Some data, doubts, and sugges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25-438.
- Luc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Maeda, R. (2003). *Empathy, emotional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ington.
- Malti T. (2007). Moral emotions and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In G. Steffgen, M. Gollwitzer (eds.), *Emotions and aggressive behavior* (pp. 185-200). Gottingen, Germany: Hogrefe.
- Malti, T. (2010). Moral emotions and aggressive behaviour in childhood. In S. Steffgen & M. Gollwitzer (Eds.), *Emotions and aggressive behaviour*. Göttingen: Hogrefe.
- Malti, T., Gasser, L., & Buchmann, M. (2009). Aggressive and prosocial children's emotion attributions and moral reasoning. *Aggressive Behavior, 35*(1), 90-102.
- Malti, T., Gasser, L., & Gutzwiller-Helfenfinger, E. (2010). Children's interpretive understanding, moral judgments, and emotion attributions: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75-292.
- Malti, T., & Kellar, M., (2009). The 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to emotion attributions, evaluation of consequence and moral reasoning. *European*

-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6, 592-614.
- Manning, M. A., & Bear, G. G. (2002). Are children's concerns about punishment related to their aggress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6), 523-539.
- Menesini, E., & Camodeca, M. (2008). Shame and guilt as behaviour regulators: Relationships with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83-196.
-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Lo Feudo, G. (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ur*, 29, 515-530.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 (2001).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ur: Conduct disorder, delinquency and violence in the Dunedin longitudinal stud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ntada, L. (1993). Understanding oughts by assessing moral reasoning or moral emotions. In G. Noam, & T. Wren (Eds.), *The moral self* (pp. 292-309). Boston: MIT Press.
- Nunner-Winkler, G. (1999). Development of moral understanding and moral motivation. In F. E. Weinert & W. Schneider (Eds.), *Individual development from 3 to 12: Findings from the Munich longitudinal study* (pp. 253-290).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ner-Winkler, G., Meyer-Nikele, M., Wohlrab D. (2007). Sex differences in moral motivation. *Merrill Palmer Quart* 53, 26-2.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Nussbaum, M. C. (2001).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obio de Castro, B., Merk, W., Koops, W., Veerman, J. W., & Bosch, J. D. (2005). Emotions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ir relations with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referred aggressive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105-116.
- Orobio de Castro, B., Veerman, J. W., Koops, W., Bosch, J. D., & Monshouwer, H. J. (2002).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aggressive behaviou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73, 916-934.
- Perkins, S. A., & Turiel, E. (2007). To lie or not to lie: To whom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Child Development*, 78, 609-621.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Pizarro, D. A., & Bloom, P. (2003). The intelligence of the moral intuitions: Comment on Haidt (2001). *Psychological Review*, 110, 193-198.
- Pizarro, D. A., Uhlmann, E., & Bloom, P. (2003). Causal deviance and the attribution of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653-660.

- Quiless, Z. N., & Bybee, J (1997). Chronic and predispositional guilt: Relations to mental health, prosocial behavior, and religios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1), 104-126.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
- Stams, G. J., Brugman, D., Dekovic, M., van Rosmalen, L., van der Laan, P., & Gibbs, J. C. (2006). The moral judge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697-713.
- Tangney, J. P. (1995).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8), 1132-1145.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Fischer, K. W. (1995). *Self 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ker, L. J., (2006). Gender and morality. In M. Killen & J. G. Smetana(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93-115). Mahwah, NJ: Erlbaum.
- White, J. L., Moffitt, T. E., Caspi, A., Bartusch, D. J., Needles, D., J., & Stouthamer-Loeber, M. (1994).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192-205.
- Williams, S., Anderson, J., McGee, R., & Silva, P., (1990). Risk factors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3), 413-419.
- Zahn-Waxler, C. (2000). The development of empathy, guilt, and internalization of distress. In R. J. Davidson(Ed). *Anxiety: Depression, and emotion* (pp. 222-26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16.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6.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The Effects of Moral Judgment, Emotion, and Emotional Attribution of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on Externalized Behaviors in a Moral Transgression Context

Chang, Heesu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oral judgment and emotional attribution effect externalized behaviors of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in moral transgression context. The subjects were ninety-one elementary students in the second grades. We measured moral reasoning; we evaluated the results; on emotional attribution and externalized behaviors. After that, we conducted paired *t*-test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mong the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a difference of degree of moral judgment with a transgression context. Second, moral judgment, moral judgment attribution, emotional judgment and emotional judgment attribution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externalized behavior. Third, when transgression behavior was conducted by the student rather than others, they attribute with moral reason and had a negative effect. However, attributing with pleasure had a positive effect on transgression behavior.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c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when considering moral judgment and emotional attribu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s: externalized behavior, moral reasoning, emotion(self-other), emotional attribution, moral transgression context, children